

부문별 주요 기사

8월 1일~8월 31일

* 북한매체(7월 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부문별 주요 기사

8월 1일~8월 31일

대내경제 87

<경제성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부문별 7월 경제성과 발표

<경제개발구>

원산-금강산지역 홍보에 노력을 기하는 북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외자 유치 노력

<시장화 및 사경제>

북한 사금융 활성화

북한 사경제 발달과 사회변화

<기타>

품질관리의 중요성 강조

대외경제 92

<북중관계>

북한의 중국 방문자 수 감소

중국 경제 발전 속도 완화, 가뭄보다 북한 경제에 더 큰 영향 미쳐

지린성, 대북교류 확대

<대북지원>

7월 대북 식량지원, 6월에 비해 두 배로 증가

〈북한 노동자〉

카타르 건설회사, 북한 노동자 전체 강제 추방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남북교류 97

〈개성공단〉

개성공단 성장세로 남북 교역 규모 증가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

대내경제

〈경제성과〉

민주조선(7.17)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민주조선」(2015. 7. 17)은 개최일자는 제시하지 않고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이번 확대회의는 올 들어 4번째로, 「민주조선」은 지난 1월 16일, 3월 14일, 4월 24일 이를 개최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음.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는 내각총리의 주재로 각료가 출석하고 내각 직속기관, 지방행정기관 책임자, 공장, 기업소 지배인 등이 방청하는 형태로, 지난 시기 경제계획의 성과(분기, 반기 또는 연간)와 향후 경제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통례임. 이번 7월 개최된 확대회의는 이러한 통상적인 회의였고 3월 열린 확대회의는 김정일이 제시한 과업과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결의회의였음.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지난 상반기 실적과 3/4분기 계획수행에 대해 논의되었음. 이 회의에서 언급된 상반기 계획수행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한편 3/4분기 내각이 추진하여야 할 중점과제로는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겨냥해 완공하게 될 중요대상들에 힘을 집중하고 전력생산을 최대한 높이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제고하는 것이 제시됨.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가뭄과 폭우, 태풍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다고 「민주조선」은 보도함.

〈2015년 상반기 경제수행상황〉

부문	경제수행상황
화학공업	- 순천화학연합기업소가 새로운 철강생산 공정을 완비하고 시제품생산 - 단천지구광업총국은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 전자갱운반계통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 단천제련소 유리섬유생산공장건설을 완료해 유리섬유의 국산화실현
금속공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3호 대형 원추형 파쇄기 설치공사를 완료 및 운영 -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공사 마감단계로 진행
건설	- 용매도 간석지 6호구역의 방조제마감 공사 완료 -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 남새온실과 살림집, 공공건물들을 현대적으로 건설
농업	- 가뭄에 대처하여 과학적인 물 절약형 모기르기 방법을 전년대비 2.5배 면적에 도입 - 다수확논벼품종을 논에 많이 도입해 알곡증산전망가능
경공업	- 생산정상화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원만히 공급
수산	- 상반기 물고기생산목표를 138% 달성하고 전년 동기대비 1만 9,800톤 증가
건설건재공업성과 기계공업성	- 상반기 생산계획 판유리 108%, 전력케이블 2.1배, 변압기 128%, 전동기 126%, 베어링 144% 초과달성 -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상반기 계획의 117% 달성

부문별 7월 경제성과 발표

「민주조선」(2015. 8. 5)은 7월 부문별 경제성과를 1면 톱기사로 게재함. 북한은 그동안 개별 단위나 일부 부문의 성과를 단편적으로 게재하여 왔음. 이번에 여러 부문의 월별 성과를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그러나 이번의 실적발표는 성과가 좋은 부문만 열거되었고 그것도 7월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10월 노동당 창건에 맞추어 목표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민주조선」에 발표된 부문별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한편 석탄생산의 경우 올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동기보다 60여만톤이 증가하였고 7월 20일까지의 실적은 지난해 7월 같은 기간에 비해 8만톤 증가한 것으로 「노동신문」(2015. 7. 22)은 보도

〈2015년 7월 경제실적〉

부문	경제실적
수산성	- 물고기생산계획(양어): 108.2% - 수산물생산계획: 155%
건설건재공업성	- 건설조립액계획: 109.6% - 판유리생산계획: 111.5%
철도성	- 화물수송계획 · 평양철도국: 102% · 함흥철도국: 101% · 개천철도국: 100.3% · 청진철도국: 100%
채취기계공업국	- 인민경제계획: 117.8% · 안주펌프공장: 185% · 신의주광산기계공장: 143%
채취공업성	- 인민경제계획: 109.9% · 은파광산: 135.9% · 성천광산: 125% · 대대리광산: 115.2% · 풍년광산: 108.4%
기계공업성	- 대상설비생산: 128%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139% ·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11% - 운전기계공업부문: 141% - 공작기계 공업부문: 111%
식료일용공업성	- 인민경제계획: 114% · 평양밀가루기공공장: 4배 이상 · 평양곡산공장: 2배 이상

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중국의 철도 관련 투자 회사인 '중태뒤징투자그룹'은 북한이 싱가포르에 만든 회사와 함께 '희망투자그룹'을 설립했다고 밝힘. '희망투자그룹'은 북중경협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특구, 나진항, 발전소 등 12개 개발 대상 분야를 발표함.

학계에서도 유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9월 20~21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한국학 관련 학술회의에서 북한 사회과학원의 김철준씨가 북한 경제특구의 설립과 개발 실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시장화 및 사경제〉

The Wall Street Journal(8.4), UPI(8.5), 한국경제(8.6)

북한 사금융 활성화

북한의 시장화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환전 및 고리대 등 사금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에서 개인 상업은 공식으로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나 북한 당국이 뇌물이나 장세를 챙기는 대신 이러한 활동에 대해 묵인하고 있어 북한의 시장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은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한 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금융 도입초기에는 사기사건도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신뢰문화가 정착하고 있음. 연 이자율은 50~60% 정도라고 알려짐.

북한 사경제 발달과 사회변화

이러한 북한 주민의 활발한 경제 참여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약화로 인해 북한에 광범위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정보의 유출입, 비공식 네트워크, 부패, 탈북자, 북한의 새로운 세대(capitalism, information flows, informal networks, corruption, defectors and a new generation of North Koreans) 등 6가지 요인들이 혼합되어 북한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전함.

〈기타〉

노동신문(8.2)

품질관리의 중요성 강조

「노동신문」(2015. 8. 2)은 품질관리 개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가품질감독위원회의 관계자들(부위원장 및 관련 국장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 북한은 매년 7월을 품질향상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올 신년사에서도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또한 홍성남은 『김일성종합대학학보』(2015. 2)에 기고한 논문에서 “인민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여 쓸모있고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이 상점들에 차넘치게 하여 인민들이 아무 때나 상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였을 때”가 경공업부문 종사자들이 자기 임무수행을 다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이처럼 북한은 품질제고 문제를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

인터뷰에서는 품질제고문제는 주민들의 요구중대, 국제사회의 시대적 추세에 따라 모든 부문, 단위에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특히 품질관리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규격화, 법제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함. 따라서 지난날의 품질검사에 의한 질보증은 품질인증(제품인증과 관리체계인증)으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구체적인 품질제고 전략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제품갱신, 새 제품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 제정된 규격을 생산과 경영활동에 적극 적용하기 위한 사업의 전개 ▲ 규격정보사업을 발전시켜 규격을 부단한 갱신 ▲ 품질감독사업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량측정수단과 검사측정수단들을 더욱 현대화하는 등 품질감독사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것 등을 제시.

대외경제

〈북중관계〉

천카오신시망[参考消息网] (7.30), CRBN[国际在线] (8.13), Voice of America(8.19), Daily NK(8.20)

북한의 중국 방문자 수 감소

2015년 상반기 북한의 중국 방문자 수가 8만 9천 7백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2015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 방문 목적별로는 53%는 식당 및 공장 취업, 15%는 회의 참석이나 사업, 0.7%는 관광이 차지했음.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방문자의 85%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45~64세 그룹이 54% 정도로 가장 많았음.

중국 경제 발전 속도 완화, 가뭄보다 북한 경제에 더 큰 영향 미쳐

홍콩 언론은 북한이 직면한 에볼라 방역, 가뭄 등 문제 가운데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 완화가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함. 홍콩 「남화조보」는 올해 북한 경제는 에볼라 방역, 날씨, 중국의 대규모 투자자들의 공황 심리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음. 북한의 대외무역 중 대중 무역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보도에서는 중국 투자자 중 80% 이상인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크며, 경제 성장폭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함. 따라서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고 북한에 투자해 공장을 지으려는 중국 동북지역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비관론자들은 인구 변화로 인한 구조 조정, 부동산 거품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단지 단기적 시장 조정 현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임.

지린성, 대북교류 확대

지린성(吉林省)의 11개의 접경교량 중 10개가 북한과 맞닿

〈중국 방문 북한주민 추이〉

(단위: 만명)

연도	회의 참석/ 사업	관광	친지/ 지인 방문	취업	기타
2010	2.53	0.43	0.04	5.39	3.24
2011	3.90	0.46	0.01	7.53	3.33
2012	5.52	0.45	0.02	7.96	4.11
2013	5.51	0.29	0.03	9.33	5.50
2014	3.39	0.15	0.01	8.91	5.97
2015. 1~6	1.37	0.06	0.00	4.73	2.81

출처: 중국여유국

〈북한-중국간 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도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합계	
	금액	금액	금액	비중
2012	2,484	3,527	6,012	88.3
2013	2,914	3,633	6,547	89.1
2014	2,841	4,023	6,864	90.1

출처: KOTRA

아 있음. 지린성은 이미 21개 국제운송노선을 개통했고, 이중 대북 노선이 11개(여객 3개, 화물운송 3개)임. 지린성 교통운수청에서는 이러한 접경지역의 도로와 교량 건설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힘. 중북, 중러 변경도로는 이미 개통되었고, 변경 및 항구도로의 기술표준은 현재 3등급 이상 수준임. 중북은 2014년 운송 화물 154.8만톤, 여객 수송 17.5만명, 출입차량 10.9만대로 양측의 교류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권하항구(卷河口岸)는 중북교류의 핵심 항구로, 북한 원정(元汀)국제항구와 맞닿아 있어, 최근 북한 측에서는 출입국 검문 통관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음. 삼합항구(三合口岸)에서는 2014년 여객 수송 2.6만명, 출입국 운송화물 27.6만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했음. 권하대교의 경우 현재 옛 다리의 상류 30미터 거리에 새로 건설중이며, 2014년 9월 시작으로 2016년 9월 완공할 예정임. 도문(圖們)항구대교 역시 옛 도문강대교의 상류 20미터 위치에 작년에 착공됨.

〈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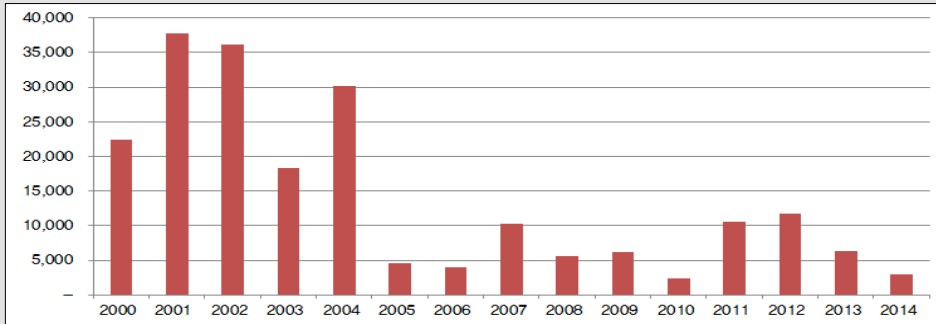
UPI(8.4)

7월 대북 식량지원, 6월에 비해 두 배로 증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7월 대북 식량지원은 6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3,000톤 가량이 임산부, 어린이들에게 분배되었다고 전함. 이는 지난 19개월 중 최고 지원량이지만 수혜자 수는 632,000명에서 620,000명으로 감소함. UN 기구는 대북 식량 지원을 종료하려고 하였지만 최근 가뭄으로 인한 식량 공급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04년 3억달러에서 2014년에는 5천만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북 지원의 최대 공여국인 한국과 미국의 지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추이〉

(단위: 만달러)



출처: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System(<https://fts.unocha.org>, 접속일자: 2015. 8. 31).

〈한국의 대북지원 추이〉

(단위: 만달러)



출처: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2015.

〈북한 노동자〉

Voice of America(8.25), 연합뉴스(8.26)

카타르 건설회사, 북한 노동자 전체 강제 추방

지난 5월 북한 노동자 중 90명을 해고한 카타르 건설회사 CDC(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가 결국 남은 108명의 노동자도 전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DC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원인은 북한 노동자들이 야간에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 5월 북한 노동자들을 해고할 당시 CDC와

북한대사관 관계자 간의 합의내용을 위반한 것임. CDC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 근로자들은 북한 감독관에 의해 다른 건설현장에서 야간 업무를 하도록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착취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함.

현재 카타르에는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보도블록을 깔고 고층빌딩을 짓는 등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Genco)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연합뉴스(8.4, 8.6, 8.13, 8.19, 8.24, 8.31), 노컷뉴스(8.7, 8.28), 국민일보(8.12), 세계일보(8.13), 동아일보(8.31)

아래 표는 8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시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2015년 7월	자체 생산한 영양강화 식품	3,230톤	· 전체 지원 대상 180만명 중 어린이 및 임산부 62 만명에 제공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2015년 4~6월	나무	700만 그루	· 자연재해 대비를 목적으 로 북한의 4개 도 산간 지역 1,372ha에 나무를 심음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2015년 4~6월	자연재해 복구(농경지 복구 및 관개수로 재정비)	농경지 1,300ha, 관개수로 15km, 저수지 2개, 우물 240여 곳 복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북한 국토환경성 및 농 업성 참여 · 주민 1만 3천여 명 동원
독일 NGO (유기농업연구소)	2015년 4월 ~2019년	친환경 축산농법 체계 보급	50만달러	· 유럽연합에서 50만 달러 를 지원받아 4년 간 진 행할 예정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CERF)	2015년 8월	가뭄 및 홍수 긴급대응 지원금	625만달러	· UNICEF, WFP, WHO를 통해 각각 280만달러, 300만달러, 45만달러 지 원 · 식수, 식량, 의약품, 긴급 구호품 지원 예정
핀란드 NGO (핀란드개발협력기구)	2009년~	식량 및 초과 의료, 강원도 보건소 및 병원 개·보수 지원	182만달러	· EU자금 141만달러로 강 원도 세포군에서 식량안 보개발사업 진행 중
독일 정부	2014년	재난 대응 기금	85만달러	· 세이브더칠드런의 북한 재난대비 사업에 지원 · 2017년 7월까지 진행
국제적십자사	2015년 8월	수해복구 특별지원금	21만달러	· 황해남도, 함경남북도 지 역 수재민 900여 가구

국가명 (단체)	지원일시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3,541명에 임시거처 제공 및 구호품 전달
스웨덴 정부	2015년 7월	장애인 사업 기금	30만달러	· 국제 장애인 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을 통해 지원
유럽연합(EU)	2015년 2016년	대북식량사업 기금	675만유로 275만유로	· 유럽의 7개 비정부 단체 들이 북한에서 '식량 안 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한국 정부 및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2015년 9~11월	산림 복구 연수	7만달러	· 북한 산림 전문가 30여 명에게 독일 에베르스발 데 대학에서 연수를 진 행
통일부	2015년	산림·환경 협력 사업	30억원	· 민간단체 7~8곳을 통해 지원

남북교류

〈개성공단〉

서울경제(8.7), 세계일보(8.18), VOA(8.18), 경향신문(8.18), 문화일보(8.20)

개성공단 성장세로 남북 교역 규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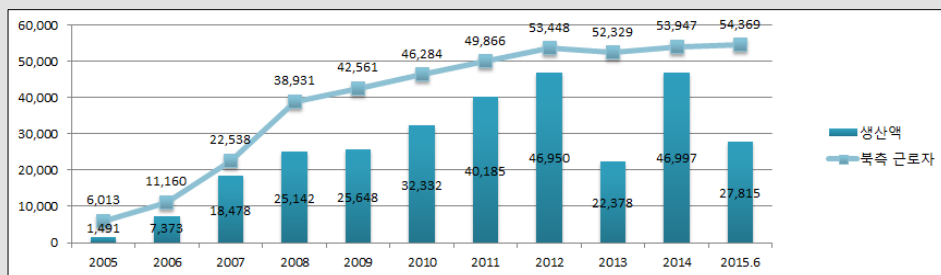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성공단 생산금액(2억 3,342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1억 9,133만달러)보다 21.9% 증가했음. 지난 해 남북 교역금액은 개성공단이 약 160일간 폐쇄됐던 2013년(11억 3,585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음(23억 4,264만달러). 1989년에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남북 교역 누적금액은 217억달러인데, 그 중 개성공단 관련 남북 교역 누적금액은 112억달러로 전체 남북 교역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정부와 입주기업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성장한 주요 원인은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졌기 때문임. 북한 근로자 수는 2005년 6,013명에서 2014년 5만 3,947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함. 하지만 지난해 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력수요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충분히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1만 6,000여 명이 더 필요함.

개성공단의 개발 상태는 현재 약 40만평 규모로, 공단 800만평과 배후도시 1,200만평 등 총 2,000만평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당초 개발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남북 간 갈등이 해결되고 개발이 본격화되면 개성공단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성공단 연도별 북측 근로자 수 및 생산액 추이〉

(단위: 만달러)



출처: 통일부.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올해 3월 이후를 기준으로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함.

당초 북측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폭은 5.18%였음. 하지만 기존 노동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 상한선은 5%이므로, 최저임금 추가 인상 즉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남북공동 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함.

관리위와 총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중, 직제, 근속 연한에 따른 가급금을 포함하기로 합의함.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감안하면 기업별로 8~10% 정도 임금비용이 상승하게 됨.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및 김삼기 前 전문위원 | kseulki86@kdi.re.kr

기사 원문 리스트

- [2015.6.10] "북한 신흥 부유층 '돈주' 아파트 건설에도 투자"...북한식 사금융 (SBS)
- [2015.6.30] How private finance too hold in North Korea (nknews.org)
- [2015.7.30] 中国经济放缓波及朝鲜 影响或大于旱情 (参考消息网)
- [2015.8.2] 북한, 원산-금강산지역 주요 명승지 소개 '눈길' (연합뉴스)
- [2015.8.4] North Korea's Private Finance: No Banks but Lots of Loans (The Wall Street Journal)
- [2015.8.4] World Food Program: Food aid to North Korea up 110 percent in July (UPI)
- [2015.8.4] WFP "7월 대북 식량지원 전월대비 110% 증가" (연합뉴스)
- [2015.8.5] Free market enterprise bringing changes to North Korea (UPI)
- [2015.8.6] 북한 私금융 활발 (한국경제)
- [2015.8.6] WFP, 홍수 대비 북한에 나무 700만 그루 심어 (연합뉴스)
- [2015.8.7] 남북관계 짝 막혔지만... 개성공단 '잘 나가네' (서울경제)
- [2015.8.7] 독일 NGO, "북에 유기농법 연계 친환경 축산농법 보급" (노컷뉴스)
- [2015.8.11] 태국 외무장관 "북한, 경제특구에 태국 기업 투자 요청" (NEWSIS)
- [2015.8.12] 태국에의 北 투자 요청, 자본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북한 사정 입증 (NEWSIS)
- [2015.8.12] 유엔, 홍수 피해 북한에 20억원 긴급 투입 (국민일보)
- [2015.8.13] 유엔, 가뭄·홍수 이중고 북한에 630만달러 긴급지원 (세계일보)
- [2015.8.13] 핀란드NGO, 6년째 북한 치과분야 지원 (연합뉴스)
- [2015.8.13] 吉林对朝互通水平提升 口岸公路桥改建成建设重点 (国际在线)
- [2015.8.15] 북한, 외자유치 '총력전'...중국과 합작사도 설립 (연합뉴스)
- [2015.8.15] 北, "평양국제상품전 계기로 원산특구 투자자 모집 중" (노컷뉴스)
- [2015.8.18] Koreas Agree on 5% Wage Hike for Kaesong Workers (Voice of America)
- [2015.8.18]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 (경향신문)
- [2015.8.19] 독일, 북한 재난대비 사업에 10억원 지원 (연합뉴스)
- [2015.8.19] 올 상반기 중국 방문 북한 주민 2년 연속 감소세 (Voice of America)

- [2015.8.20] N. Koreans on visas to China drops (Daily NK)
- [2015.8.20] 南北 누적 교역액 200억 달러 돌파 (문화일보)
- [2015.8.20] 북한, 오스트리아 학술회의서 '경제특구' 홍보 (연합뉴스)
- [2015.8.24] 국제적십자사, 북한 수해복구에 2억5천만원 긴급지원 (연합뉴스)
- [2015.8.25] North Korean Workers in Qatar Fired Over Labor Violations (Voice of America)
- [2015.8.26] "북한 건설노동자 108명 카타르서 강제 추방돼" (연합뉴스)
- [2015.8.27] 네덜란드 언론인 "北 '원산 금강산 관광특구' 방문" (노컷뉴스)
- [2015.8.28] 유럽연합, "NGO 통해 대북식량사업 760만 달러 지원" (노컷뉴스)
- [2015.8.31] EU, 내년 북한 영양개선 예산으로 36억원 책정 (연합뉴스)
- [2015.8.31] 북한 산림전문가, 남한정부 지원으로 독일서 연수 (연합뉴스)
- [2015.8.31] 정부, 대북 산림-환경협력 30억 지원 (노컷뉴스)

참고문헌

홍성남, 「올해 인민경제향상에서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편, 제61권 제2호, 2015. 2.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